

# 멕시코의 농업정책과 통상정책<sup>1)</sup>

허 덕\*, 김태련\*\*, 김수연\*\*\*

## 1. 정치 정세

### 1.1. 통치 기구

#### ① 연방의회

멕시코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정해져 있으며, 연방의회, 대통령, 최고재판소가 각각 최고 권력을 맡고 있다. 연방의회(Congreso de la Unión)는 상원(Cámara de Senadores) 및 하원(Cámara de Diputados)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 정원은 128명, 임기 6년, 하원 정원은 500명, 임기 3년이다.

상원의 권한으로는 조약의 승인이나 해외파병 승인 등이 있다. 한편 하원은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채발행, 과세 징병에 관한 법안의 선의권(先議權, 우선의결권)을 갖는다. 연간 2회기제를 취하고 있으며, 제1통상회기는 9월 1일, 제2통상회기는 3월 15일에 시작된다.

필요에 따라 1회기는 최장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회기는 같은 해 4월 30일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폐회에 대해 양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재가 내려지게 된다<sup>2)</sup>.

#### ② 입법 과정과 예산성립 과정

양원 의원이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출된 법안은 양원 중 하나의 제출심

1) 이 글은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の 내용 중 멕시코 부분만을 정리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 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KREI 연구원, 축산관측 담당자

2) 外務省, 「メキシコ合衆国基礎データ」,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의 의결, 제2원 심의의결, 행정부 동의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통과된다. 제2원에서 부분 부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안이 제1원에서 재의결되면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성립한다. 제2원에서 모두 부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양원에서 재의결되어야 한다. 의회 의결에 대해 행정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성립이 인정된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무성이 각 성마다 예산 상한을 결정하여 하급 관청에 내려주게 되면, 각 관청은 이를 기초로 예산을 배분한 것을 제출한다. 예산 배분은 각 부처의 상급 사무관실(Oficialía Mayor)이 실시한다. 절충 후 재무성이 정리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sup>3)</sup>

### ③ 주요 부처 목록과 역할

멕시코의 주요 부처는 다음과 같다. 농업정책을 주로 관할하는 곳은 농업·농촌개발성(SADER)이며, 2018년 12월에 SAGARPA<sup>4)</sup>로 부터 개칭되었다(표 1).

## 1.2. 정치 동향

### ① 정치체제의 추이

#### • 1929년~2000년 제도혁명당(PRI) 시기

멕시코에서는 1929년 출범한 제도혁명당(PRI<sup>5)</sup>)이 2000년까지 71년 동안 계속해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었다. 살리나스<sup>6)</sup> 정권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졌다.

3) 総務省, 「諸外国の行政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メキシコの行政」, 2010.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4) 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ón, Secretariat of Agriculture, Livestock, Rural Development, Fisheries and Food, 농축수산물농촌개발성

5) 멕시코의 정당. 혁명제도당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의 스페인어학과나 중남미학과 교수들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는 제도혁명당으로 번역하며, 영어로도 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라고 쓴다. 1929년 창당된 이래 2000년까지 71년간 장기 집권한 정당이다. 만약 200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소련 공산당의 장기집권 기록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1929년부터 1989년까지만 해도 멕시코의 32개 주의 주지사직을 전부 독점하였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6)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1948.4.3. ~). 멕시코의 정치인으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인물. 멕시코시티에서 경제부 장관을 지낸 라울 살리나스 로사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이러한 출신 배경은 살리나스가 유능한 인재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2년 새로 취임한 미겔 데 라 마드리드가 그를 방송예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개시하였다. 1987년 10월 5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임했다. 곧바로 경선에 뛰어 들어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시만 해도 제도혁명당의 1당 독주체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리나스가 가볍게 낙승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살리나스는 50.7%를 득표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상대방이었던 쿠아우테목은 31.1%만을 득표했다. 살리나스는 경제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국부에 가까운 칭송을 받았다. 선거 전부터 미국과 NAFTA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기 말인 1994년 1월 1일 미국과 FTA를 정식

〈표 1〉 멕시코의 주요 부처 목록과 역할

조직명 (한국명·약칭)	조직명 (원문)	역할
외무성 (SRE)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정부기관의 해외활동에 협력·지원·보장, 외교정책의 실행, 외부의 지휘, 해외에서의 국민보호 등
재무성 (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연방·연방특별구·준정부기관의 세입 계획·계산, 국채관리, 은행시스템 계획·조정·평가·감시, 징세, 세관 등.
복지성 (BIENESTAR)	Secretaría de Bienestar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설계·계획·실행·조정을 담당 •빈곤대책과 사회적 약자에대한 지원을 함.
환경자연자원성 (SEMARNAT)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생태계·천연자원·환경재 및 서비스의 보호·회복·보존, 환경법령의 촉진, 기상·기후·수리·지질수리와 관련함. 조사·연구·업무 등.CONAGUA(수자원국가위원회)는 동성 산하에 들어감.
에너지성 (SENER)	Secretaría de Energía	•에너지 정책의 지휘, 연료 자원 이용에 관한 나라의 권리의 행사나 서비스 제공 등.
경제성 (SE)	Secretaría de Economía	•산업·무역·국내 거래·생활 필수품·물가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농업농촌개발성 (SADER)	Secretaría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농촌 개발, 농촌에의 투자 프로젝트, 농림 수산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운수통신성 (SCT)	Secretaría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s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공적 통신 서비스의 규제·검사·감시, 공항·철도·자동차도·항만에 관한 건설 인허가·감시 등.
공공행정성 (SFP)	Secretaría de Función Pública	•연방정부의 통제 및 평가 시스템의 계획·조정, 공공지출 검사, 연방정부의 통제수단·절차의 기준 책정 및 감시, 정부지국·단체의 내부통제 촉진·회계감사의 실행 등
공공교육성 (SEP)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학교 교육의 조직·감시·개발, 교육 계획 책정, 학술 연구기관의 설립 촉진, 문화유산 보호, 예술·문화 활동의 계획 등.
보건성 (SSA)	Secretaría de Salud	•사회 복지·의료 서비스·공중 위생에 관한 국가 정책의 계획 및 실시 등.
사회복지노동성 (STPS)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노동 관련법의 준수·적용의 감시, 노동 생산성 증가의 촉진, 기능 개발·직업 훈련의 촉진, 사회보장 정책의 작성, 사회보장 서비스의 조정 등.
농지영토도시개발성(구 농지개혁성)(SEDATU)	Secretaría de Desarrollo Agrario, Territorial y Urbano	•농지 규칙·법령의 적용, 농촌 개발의 인허가, 농업 지대 개혁의 프로그램 기획 등.
관광성 (SECTUR)	Secretaría de Turismo	•국내 관광산업 발전의 정책 작성 및 실행, 관광 서비스 산업의 인허가 등.
내무성 (SEGOB)	Secretaría de Gobernación	•내정에 있어서의 감시·문제 대처, 행정 기관·정당·제단체간의 관계 조정, 관보 등.
국방성 (SEDEN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육군 및 공군의 조직·관리·훈련 등
해군성 (SEMAR)	Secretaría de Marina	•해군의 조직·관리·훈련 등.
문화성 (CULTURA)	Secretaría de Cultura	•문화예술의 보호나 역사적·자연적 유산의 보호, 연구의 지원 등.

출처: 멕시코 대통령부 웹사이트, 각 부처 웹사이트 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으로 체결한다. 당초 살리나스는 이 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다.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살리나스 정권은 급격하게 레임덕이 걸리고 말았다. 또한 수많은 멕시코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였는데, 정경유착으로 헐값에 인수받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만이 이득을 보았다. 대표적으로 카를로스 슬림도 이때 국영기업을 인수받아 빌게이츠와 세계 최고의 부자 1위를 다투게 되었다. 연임 제한으로 1994년에 물러났지만, 국가 혼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임자로 내정되어 있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후보가 선거 유세 중 의문의 암살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콜로시오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에르네스토 세디요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지만, 48.7%밖에 득표하지 못해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 그리고 제도혁명당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살리나스 정권 시절 중이던 1994년에는 미국·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었다. 이 정부는 NAFTA 체결에 대비하여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고, 1991년에는 멕시코 농업의 기반이 되어 온 에히드(공동체 농장)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때 에히드 공유지의 임대차, 매매가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농산물 무역 자유화로 인한 국내 농업 영향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지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기존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에서 전환한 제도이다.

## · 2000년~2012년 국민행동당(PAN) 시기

2000년 대선에서는 변혁을 호소하던 국민행동당(PAN<sup>7)</sup>의 폭스<sup>8)</sup>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어 2006년 대선에서 선출된 펠리페 칼데론<sup>9)</sup>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치안 개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빈곤 감축을 내걸었다. 멕시코에서는 역사적으로 빈곤문제와 농촌대책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고, 칼데론 정부는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농촌개발을 추진하였다. 또 이 정권은 치안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지만, 마약조직 간 항쟁이 격화되는 등 치안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sup>10)</sup>.

7) 국민행동당, National Action Party), 멕시코 주요 정당 중 하나로 1939년에 창당되어 1980년 후반부터 지방선거 및 전국구 당선으로 세를 확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비센테 폭스 케사다(재임 2000~2006)와 펠리페 칼데론(재임 2006~2012)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주의 정당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비센테 폭스 케사다(Vicente Fox Quesada). 멕시코의 정치인으로,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 코카콜라엔터프라이즈 멕시코 법인 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정치에 입문, 비즈니스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성을 얻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제사회에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하고 7%의 경제성장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1942년 수도 멕시코에서 농업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를 따라 과나후아토주(州)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이베로아메리카대학에서 기업경영학을 전공하였다. 1987년 국민행동당(PAN)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 1988년 과나후아토주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거쳐 1995년 과나후아토주 민선 주지사로 선출된 뒤, 활발한 외자유치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낙후한 과나후아토주를 멕시코의 31개 주 가운데 경제발전 순위 5위로 끌어올림으로써 확고한 명성을 얻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행동당 후보로 출마해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한편, 그해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신장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미국·유럽·라틴아메리카를 순방하면서 경제협력을 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7%의 경제성장과 13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국영기업의 민영화, 부정부패 및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구조 타파, 무장투쟁단체인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과의 평화협상을 통한 국민화합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집권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여타 정당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하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9) 펠리페 칼데론(Felipe de Jesus Calderón Hinojosa). 멕시코의 정치가. 2006년 7월 대통령 선거에 집권여당 PAN(National Action Party: 국민행동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12월에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불복한 야당의 저항 정부 구성과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취임과 동시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유법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 멕시코자치기술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부대학원에서 공공행정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1999년 PAN 총재가 되었다. 2000년 12월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국가개발은행(Banobras) 총재가 되고, 2003년 9월 에너지부 장관이 되었으나 2004년 5월 장관직을 사임하였다. 2005년 말 PAN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비센테 폭스의 최측근인 산티아고 크릴(Santiago Creel) 전 내무장관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되어 돌풍을 일으켰다. 2006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민주혁명당(PRD)의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개표 부정을 주장하자 많은 지지자들이 연일 시위를 벌여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0) 総務省, 「諸外国の行政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メキシコの行政」, 2010.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

## · 2012년 대통령 선거 PRI의 정권 탈환 시기

2012년 대선에서는 PRI 엔리케 페냐 니에토<sup>11)</sup> 전 멕시코 주지사가 승리하였고,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PRI가 약진하였다. 멕시코 연방선거법원은 8월 페냐 니에토 후보의 당선에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정권교체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차기 정부의 예산·정책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페냐 니에토가 정식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929년부터 71년간 집권했던 PRI가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 · 2018년 이후 현 정부의 방향

2018년 연방 상하 양원 의회 선거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sup>12)</sup> 대통령의 지지 모태인 MORENA, 노동당, 사회적 합의당으로 구성된 ‘함께 역사를 만들자(共に歴史を作ろう)’가 상원에서 70석(전체 의석의 55%), 하원에서 314석(전체 의석의 63%)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민주혁명당(PRD<sup>13)</sup>) 소속으로 있다가, 2012년 9월 탈당하여

---

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3月에서 재인용

- 11)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2012년 12월 1일 공식 취임한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이다. 1966년 7월 20일 국영기업 직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90년대 시민단체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멕시코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멕시코 주의 주지사로 당선, 멕시코 제1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 12월에서야 PRI의 정식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지만, PRI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신한 이미지로 선거 운동 초반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엔리케는 멕시코 제1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대선후보로 출마해 2012년 8월 1일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12월 1일 공식 취임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 12)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1951년 11월 13일 ~ )은 멕시코의 좌파 정당인 국가재건운동 소속 정치인으로 멕시코의 제5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2000년과 2005년 사이 연방 구역의 수상(멕시코시장)이었다. 2005년 7월 시장직을 사임하고 모든 이익의 이익을 위한 연합의 후보로서 멕시코 2006년 대선에 출마했다. 연합은 민주혁명당이 주도하나 민주주의를 위한 모임과 노동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방선거국에 따르면, 선거는 그의 경쟁자 펠리페 칼데론이 0.58%의 차이로 승리하였다. 이후 다음 선거인 2012년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인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에게 6.6% 차로 밀려 2위로 낙선하였으며, 2018년 대선에 출마하여 3번의 도전 끝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으며, 1929년 대통령 선거 이후 89년 만에 좌파 정권으로 교체한 첫 주인공이 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흔히 그의 이름의 약자인 'AMLO'로 불리며, 또한 그의 고향 타바스코주에서 발견되는 pejlagarto 물고기의 약자를 따라 '페헤(peje)'라고도 불린다. 언론에서는 그의 대중주의적 성격에 빗대어 멕시코의 도널드 트럼프라 지칭하기도 한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13)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RD). 민주혁명당은 1989년 5월 5일에 창설된 멕시코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2006년까지 민주혁명당의 정치인들은 바하 칼리포르니아·사카테카·미초아칸·게레로·수도 연방구역의 지자체장을 맡았다. 민주혁명당은 멕시코의 남부에서 우세하였고 특히 타바스코·모렐로·틀락스칼라·치아파스 오아하카·베라크루스에서 우세를 점하였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당에서 이탈하여 국가재건운동을 창당하면서 당세가 위축되자 2018년 대선에서는

2014년 새 좌파 정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창당하였다. 2015년 중간선거에서 민주혁명당은 패배하였고, 오히려 국가재생 운동이 약진하였다. 국가재생운동은 노동당 및 사회결집당과의 정당연합을 출범시켰고,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빈부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재분배, 에너지 자활, 농업자활이라는 저소득층 중시 세 축을 내걸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금지급액 2배 증가, 교육 무상화와 같은 야심 찬 사회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동시에, 개발이 더딘 남부지역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집중하고 있다. 유카탄 반도를 일주하는 마야 철도 프로젝트나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테완테펙 지협 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12월에 의회에서 승인된 2019년도 예산안은 2%의 경제 성장률과 3.4%의 인플레이율이라고 하는 건실한 경제 전망을 전제로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sup>14)</sup>.

## ② 국가개발계획(2019~2024) 개요

멕시코 하원은 6월 27일 ‘국가개발계획(PND) 2019-2024’를 승인하였다. 종전에는 행정부가 수립하여 공포하는 것이었지만, 2014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의 PND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성립한 첫 PND가 되었다. 본체에는 정책의 기본적 방향성이, 별첨 문서에는 분야별 현황인식과 중기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기재되어 있다.

「포괄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변혁」을 전체 목표로 하여 1) 정의와 법의 지배, 2) 복지, 3) 경제개발이라는 3개의 축과 그들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1) 성(性)적 평등·무차별·포섭, 2) 부패 척결과 행정 개선, 3) 국토 개발 및 환경 보전이라는 3개의 축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PRI 정권은 지방의 생산자나 소규모의 생산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해 오지 않았다고 비판한 다음, 국내 농업의 피해와 식량이나 연료, 농업 설비의 수입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③ 2020년도 예산

멕시코 재무성(SHCP)은 9월 9일에 2020년 세입 법안과 세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

---

보수 정당인 국민행동당과 연합하기에 이른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4) 松下冽, 「로페스·오브라도르의 시대-멕시코 사회의 재생을 위한 과제와 전망-」,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였다. 세출 총액은 전년 예산과 비교하여 0.8%, 일반회계는 2.3% 증가하는 등 전년과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3.6%가 사회정책에 충당된다. 농업농촌개발성(SADER)의 예산은 43.7% 감소하는 등 크게 줄었다(표 2).

<표 2> 2020년 세출예산 내역과 증감

(단위: 10 억 페소, %)

구분기관명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4,295.4	4,395.2	99.8	2.3
연방행정기관	1,162.0	1,132.2	29.7	- 2.6
공공교육성	319.0	324.7	5.7	1.8
복지성(구 사회개발성)	156.0	173.1	17.1	11.0
보건성	128.7	128.6	- 0.1	- 0.1
치안시민보호성	55.6	59.2	3.5	6.3
운수통신성	68.9	54.4	- 14.5	- 21.2
에너지성	28.2	48.5	20.3	72.0
농업농촌개혁성	67.8	46.3	- 21.6	- 31.8
해군성	33.2	33.6	0.3	1.0
환경자연자원성	32.1	29.7	- .5	- 7.7
사회복지노동성	44.8	28.8	- 16.1	- 35.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5.6	25.7	0.0	0.0
재무성	23.4	21.1	- 2.2	- 9.5
문화성	13.4	13.4	0.0	0.1
농지영토도시개발성	19.4	10.9	- 8.5	- 43.7
외무성	19.4	10.9	- 8.5	- 43.7
경제성	8.8	8.7	- 0.1	- 1.3
내무성	7.3	5.8	- 1.5	- 20.8
관광성	9.1	5.0	- 4.1	- 44.7
대통령부	1.6	0.9	- 0.7	- 43.5
기타	12.4	13.6	1.2	9.8
독립행정법인	1,108.3	1,174.5	66.3	6.0
사회보험성	773.4	825.1	66.3	6.0
공무원사회보험청	334.9	349.4	14.6	4.4
국영기업	931.4	1,174.5	66.3	6.0
석유공사	481.2	523.4	42.2	8.8
전력청	450.2	456.4	6.2	1.4
입법·사법·독립자치기관	116.2	123.3	7.1	6.1
입법부	13.5	13.5	0.1	0.5
사법부	65.9	68.6	2.7	4.1
국가선거관리위원회	15.9	17.7	1.8	11.4
연방검찰청	15.9	18.2	2.3	14.5
기타	5.0	5.3	0.2	4.2
국립통계지리원	12.6	16.6	4.0	31.9
연방행정재판소	2.8	3.1	0.3	11.0
각 기관에 분배할 수 없는 지출	1,749.2	1,811.7	62.4	3.6
특별회계	1,751.0	1,701.1	- 49.9	- 2.8
금융코스트	775.8	732.9	- 42.9	- 5.5
지방교부금	952.6	944.3	- 8.4	- 0.9
과년도 채무변제에 관한 경비	22.5	24.0	1.5	6.6
세출총액	6,009.1	6,059.0	49.9	0.8

출처: SHCP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ón 2020',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2. 경제 정세

### 2.1. GDP의 변천과 예측

멕시코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전년대비 +2.0%로 2017년 +2.1%보다 약간 둔화되었지만, 5년 연속 2~3%대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료절도대책(燃料竊盜対策<sup>15</sup>)으로 인한 휘발유 공급 혼란과 교원노조의 철도 봉쇄<sup>16</sup>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으나, 안정적인 고용이나 소득환경이 개인소비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1~9월 GDP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전년 동기 대비 0.0%로 제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의 정책 운영의 장래 불투명성이 민간투자를 억제시키는 리스크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단체인 기업간조정평의회(CCE)는 민간부문 인프라 투자국가합의로 지칭한 현 정부 말까지 민간 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합의안에서 정부는 인허가 취득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투자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시키며, 투자계획 시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법적 틀에 따라 제거할 것을 민간기업에 약속하기로 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멕시코 국내 민간 연구소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응답자 평균 0.0%, 2020년 1.1%로 나타났다.

### 2.2. 재정 상황의 변천과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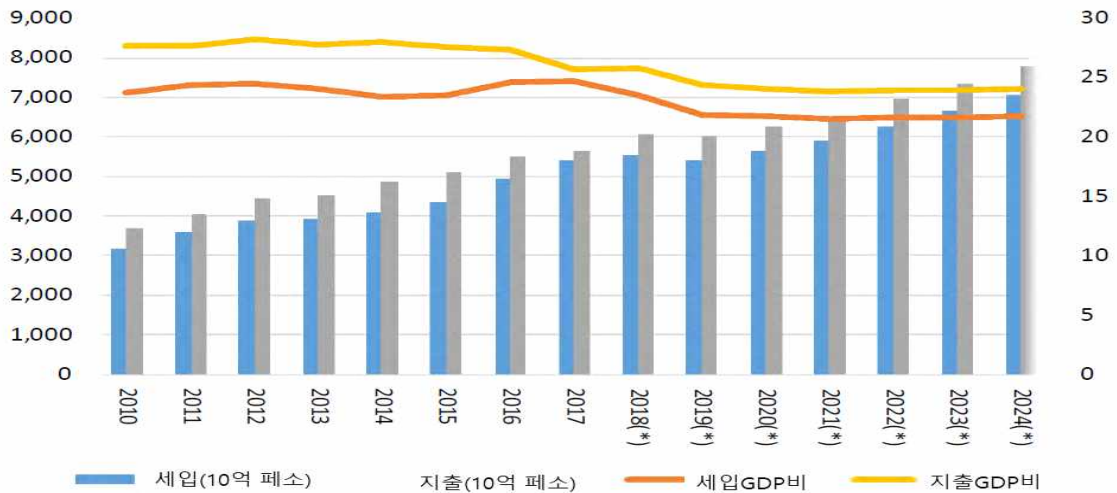
정부의 세입·지출액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의 GDP 비는 2010년과 비

15) 멕시코 중부 이달고 주에서 2019년 1월 18일(현지시간) 석유 파이프라인 화재 사고가 발생해 66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멕시코시티 북쪽 약 105km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석유를 절도하려던 도둑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뽑아내던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AFP는 많은 현지인들이 송유관에서 나오는 석유를 양동이나 캔 등에 담고 있었다며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보도하였다.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도 이날 폭발은 송유관 절도 행위 때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마르 파야드 이달고 지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화재 발생 장소가) 불법 연료 절도가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사고로 멕시코시티의 휘발유 공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산유국이지만 석유 절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푸에블라 주에서는 석유 절도에 따른 송유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신임 대통령은 석유 절도를 막기 위해 주요 송유관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근 휘발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주유소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출처 : 서울와이어, ‘송유관 뚫어 석유 절도하다... 멕시코 송유관 폭발 사망자 66명으로 늘어’, 2019년 1월 20일자 기사, <http://www.seoulwire.com>)

16) 2018년 7월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 이후 각 노조들의 파업이 성행하였는데, 그 중 교원노조의 철도봉쇄 파업은 유명하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FICC 조석원, ‘BUY 멕시코’, 2019년 2월 24일 게시, <https://blog.naver.com/zulupapa/221473864949>)

교하면 저하 경향에 있다. 멕시코의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지만, 2018년에는 약 250억 페소(1조 3,035억 원<sup>17)</sup>의 적자로 전년보다 근소하게 악화되었다. 미국 등으로의 이주 노동자로부터 송금에 의해, 제2차 소득 수지의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의해 파이낸스되고 있다(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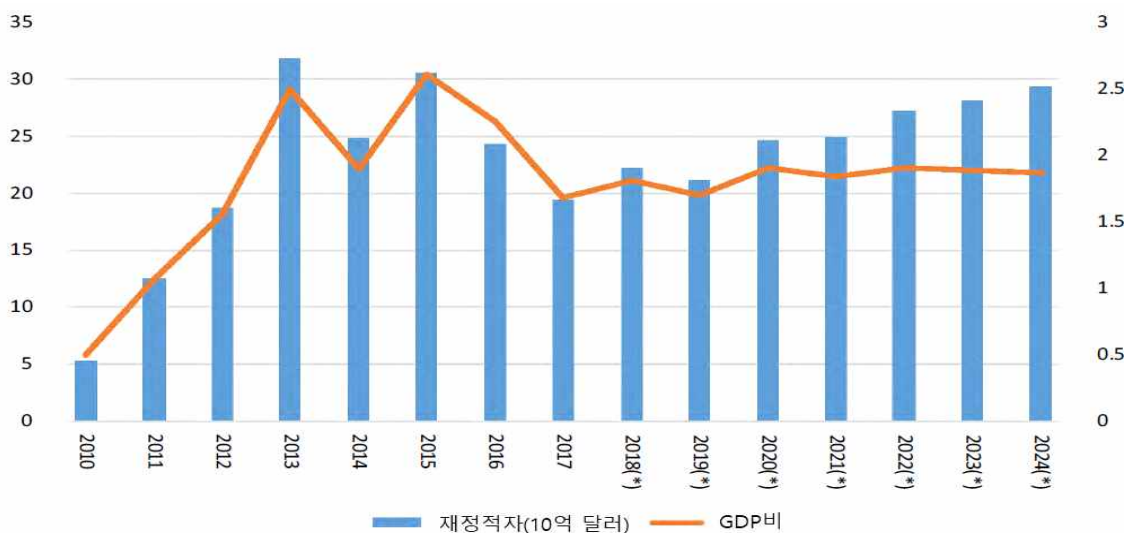
<그림 1> 정부의 세입과 지출 추이와 예측(2010~2024년)



주: (\*)는 예측을 나타낸다.

출처: U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에 따라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그림 2> 정부의 재정적자 추이와 예측(2010~2024년)



주: (\*)는 예측을 나타낸다.

출처: U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에 따라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17) 한화 원의 대 멕시코 페소 환율(2020년 8월 4일 기준) 52.14원 적용. 이하 같다.

### 3. 농업정책의 변천과 현황 및 방향

#### 3.1. 농업 개요

##### ① 지리·기후조건

멕시코의 기후 조건은 북부·중부·남부가 각각 다르다. 미국과 접하는 북부에는 건조지·반건조지대가 펼쳐져 있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경종농업에는 관개를 빼놓을 수 없다. 수리투자를 하면 넓은 농지를 가질 수 있어 대규모 농업경영체가 많고, 축산, 옥수수, 토마토 생산이 활발하다.

중부는 위도(緯度)로는 열대지역에 해당하지만, 고지(高地)이기 때문에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이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북서쪽에 위치한 바히오 지역에는 비옥한 녹지가 펼쳐져 있으며, 중산간지도 있어 복잡한 지형과 다양한 농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축산과 더불어 사탕수수, 과일, 아보카도의 생산이 번성하다.

남부는 열대 습윤한 기후로, 소규모 농가에 의한 천수농업(天水農業)이 주체이다. 커피, 카카오 등의 영년성(永年性) 작물이 주류이며, 유카탄 반도나 멕시코 만에서는 야자유 생산도 활발하다<sup>18)</sup>.

<그림 3> 멕시코의 기후 조건



출처 : Geo-Mexico 웹사이트

18) 外務省, 멕시코合衆国基礎データ,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②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수수, 오렌지, 토마토, 레몬라임, 아보카도 등이며, 특히 아보카도는 세계 제1위의 생산량이다(표 3).

〈표 3〉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작물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탕수수	51,091	49,493	50,422	49,735	50,946	61,182	56,673	55,396	56,447	56,955
옥수수	24,320	20,143	23,302	17,635	22,069	22,664	23,273	24,694	28,251	27,762
수수	6,611	6,108	6,940	6,429	6,970	6,308	8,394	5,195	5,006	4,853
오렌지	4,297	4,193	4,052	4,080	3,667	4,410	4,533	4,516	4,603	4,630
토마토	2,873	2,691	2,998	2,436	3,434	3,283	3,536	3,782	4,047	4,243
밀	4,019	4,116	3,677	3,628	3,274	3,357	3,670	3,711	3,863	3,504
팥고추	2,055	1,942	2,336	2,132	2,380	2,294	2,383	2,390	2,737	3,297
레몬/ 라임	2,243	1,987	1,891	2,148	2,071	2,139	2,205	2,343	2,430	2,528
바나나	2,151	2,232	2,103	2,139	2,204	2,128	2,151	2,262	2,385	2,230
아보카도	1,162	1,231	1,107	1,264	1,316	1,468	1,521	1,644	1,889	2,030
망고	1,717	1,509	1,633	1,827	1,761	1,902	1,755	2,070	2,197	1,958
감자	1,670	1,501	1,537	1,433	1,802	1,630	1,679	1,727	1,797	1,715
양파	1,252	1,196	1,266	1,399	1,239	1,270	1,368	1,519	1,635	1,620
수박	1,200	1,007	1,037	1,002	1,034	953	946	1,020	1,200	1,332
프리홀 콩	1,123	1,041	1,156	568	1,081	1,295	1,274	969	1,089	1,184
코코넛	1,246	1,121	1,132	1,108	1,118	1,171	1,168	1,157	1,158	1,159
면	365	279	440	746	669	587	862	593	488	1,009
보리	781	519	672	487	1,032	594	846	735	978	1,008

출처 : FAOSTAT(November,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사탕수수 생산은 2014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19~2023년에 걸쳐 연평균 1.2%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도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는 주로 식용인 백색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가 중심이다. 하지만, 멕시코도 여타 중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백색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어, 중미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는 많이 수입되는 편이다<sup>19)</sup>.

19)USDA, Mexico: Sugar Annual, 2019, USDA, Mexico: Grain and Feed Annual, 2019

〈표 4〉 멕시코의 주요 농작물 생산자 가격 추이

단위: 페소/톤

작물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탕수수	462.8	481.5	549.1	674.4	781.7
옥수수	3116	3422.8	3530.4	3609.4	3859.6
수수	2380.7	2981.8	3089.2	3154.1	3526.9
오렌지	1484	1513.5	1715.7	1862.2	2149.9
토마토	5472.9	6661.7	7127.6	7344.5	8238.8
밀	3393.9	3817.9	3659.6	3793	4083.5
풋고추	6732.3	8944.1	8689	10900.1	8896.3
레몬/라임	4110	3839.6	4270.3	5023.3	5476.8
바나나	2998	2778	2897	3174	3458
아보카도	13622.7	13713.9	16019.1	19560.7	19182.9

출처: FAOSTAT(March, 2020)에 의거하여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③ 주요 농작물 수출 및 수입 현황

주요 수출품은 맥주, 토마토, 아보카도, 증류주, 풋고추 등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대두, 조정식료품, 밀, 돼지고기 등이다.

〈표 5〉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액

(단위: 백만 US달러)

작물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맥주	2,122	2,211	2,411	2,542	2,814
토마토	1,681	1,835	1,794	1,834	2,105
아보카도	878	1,087	1,395	1,632	2,103
증류주	1,025	1,148	1,317	1,324	1,325
풋고추	773	868	892	925	1,106
베이커리제품	711	730	758	877	1,076
쇠고기	578	456	626	757	740
사탕과자	521	566	550	605	644
초콜릿	606	598	565	598	629
오이	360	441	410	437	483

출처: FAOSTAT.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표 6〉 멕시코의 농작물 수입액

(단위: 백만 US달러)

작물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옥수수	2,997	2,053	2,395	2,459	2,690
콩	1,992	2,067	2,071	1,574	1,620
조제식료품	1,007	1,078	1,129	1,145	1,206
밀	1,482	1,354	1,335	1,028	987
돼지고기	719	850	1,150	889	969
대두박	602	649	821	840	832
닭고기	736	851	852	831	704
쇠고기	811	870	922	743	701
아브라나	934	880	710	670	617
탈지분유	732	769	828	614	579

출처: FAOSTAT(November, 2019)에 의거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3.2. 국내 농업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멕시코 신정권은 농촌부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 자급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특히 남부주의 소규모 농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2018년 12월에 재편된 농업농촌개발성(SADER)에서 관리한다.

SADER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 식료품 가격 보증 프로그램, 축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비료 프로그램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 4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거 프로그램의 변천에 대해 다룬다.

<표 7> 농업관련 프로그램 예산(2019년도)

(단위: 100만 페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원문)	예산
삶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	Programa Producción para el Bienestar	9,000.0
농촌개발 프로그램	Programa de Desarrollo Rural	7,831.6
지속가능 농업 프로그램	Programa de Agromercados Sociales y Sustentables	6,707.7
식료품 가격보증 프로그램	Programa de Precios de Garantía a Productos Alimentarios Básicos a cargo Seguridad Alimentaria Mexicana SEGALMEX	6,000.0
축산업용 대출 프로그램	Programa Crédito Ganadero a la Palabra	4,000.0
농촌진흥 프로그램	Programa de Fomento a la Agricultura	2,886.7
빈곤층 식량지원 프로그램	Programa de Abasto Rural a cargo de Diconsa S.A. de C.V. (DICONSA)	2,147.1
식품안전위생 프로그램	Programa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2,128.1
연방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Programa de Concurrencia con las Entidades Federativas	2,000.0
비료 프로그램	Programa de Fertilizantes	1,500.0
빈곤층 우유 지원 프로그램	Programa de Abasto Social de Leche a cargo de Liconsa S.A. de C.V.	1,240.8
수산 진흥 프로그램	Programa de Fomento a la Productividad Pesquera y Acuícola	1,217.1
축산 진흥 프로그램	Programa de Fomento Ganadero	500.0

출처: SADER, “Informe de labore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① 삶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Programa Producción para el Bienestar)

삶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Programa Producción para el Bienestar)은 2019년에 작성된 중소규모 곡물생산자 직불 프로그램으로, 농촌생활 지원, 식료품 자급자족, 농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가 정의한 25개 우선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이전의 직접지불 프로그램인 PROAGRO 또는 PIMAF(옥수수·콩류 생산자 장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던 20헥타르 이하 토지를 소유한 생산자이다. 2019년도 연방재정지출예산(PEF)에서 이 프로그램에 승인된 예산은 90억 페소(4,692억 6천만 원)였으나, 2분기에는 사탕수수와 커피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페소(1,042억 8천만 원)가 추가되어 110억 페소(5,735억 4천만 원)가 되었다.

이러한 직접 생산자 소득을 보상하는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1994년 NAFTA 발효로 인해 옥수수 등 관세철폐에 따른 이행조치로서 정부는 PROCAMPO(농지면적에 따른 직접 지불)를 NAFTA 발효로부터 15년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직불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에도 기본 스킴(Scheme)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면적단가를 적용하였지만, 대규모 농가 우대라는 비판이 있어 5 ha 이상은 단가를 낮추어, 지급상한을 10만 페소(521만 4천 원)로 하고, 농지면적이 1 ha 미만인 농가도 1 ha 분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시 20년 후에 명칭이 PROAGRO로 변경되어, 중규모 이상의 농가의 단가를 더욱 낮춤과 동시에, 빈곤지역의 우대단가를 설정하고 있었다.

## ② 기초 식품 가격 보증 프로그램(Programa de Precios de Garantía a Productos Alimentarios Básicos a cargo Seguridad Alimentaria Mexicana)

2019년 3월에는 4개 주요 품목을 사용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보증가격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규모 농업생산자의 수입을 늘리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것은 정해진 생산량, 농지면적을 밑도는 옥수수, 프리홀(frijoles) 콩<sup>20</sup>, 밀, 쌀 생산자이다. 보증가격은 각각 1톤당 옥수수가 5,610페소(29만 2,505원), 프리홀 콩이 14,500페소(75만 6,030원), 밀이 5,790페소(30만 1,891원), 쌀이 6,120페소(31만 9,097원)이다.

보증 가격으로의 매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것은 SEGALMEX라 불리는 새로운 기관이다. 이 조직은 저가격으로 빈곤층에 우유를 판매하는 국영기업인 Liconsa와 식료품을 농촌에 배급하는 정부 조직인 Diconsa가 합병하여 탄생한 것이다. SELGAMEX는 구입한 농산물을 Liconsa나 Diconsa가 소유하고 있던 배송센터나 점포를 통해 배송하여, 배급과 판매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 100일 동안 이미 1,700여 개 생산자에게서 콩을 구입하였다고 밝혔다<sup>21</sup>.

이러한 가격보증정책은 직불이 주류가 되기 이전 멕시코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 1961년 국영식량공사(Compana Nacional de Subsistencias Populares : CONASUPO)가 설치되어, 주요 작물의 가격 안정화와 이에 따른 농가의 수입 및 구매력 향상을 목

20) 강낭콩의 일종으로 멕시코와 페루의 대표 음식인 프리홀이라는 갈아 으깨 만든 요리의 원료로 쓰인다.(출처: 네이버카페 남미사랑, '멕시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아요' (<https://cafe.naver.com/nammisarang/33500>))

21) USDA, "Mexico Announces New Agricultural Support Program", 2019

적으로 농작물의 수매, 가공, 비축, 유통, 수입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화 흐름 속에서 1991년에는 옥수수과 프리홀 콩을 제외한 작물의 가격지지제도가 철폐되었고, 이후 1994년 프리홀 콩, 1999년 옥수수 가격지지제도도 폐지되었다. 그 결과 1999년 CONASUPO는 해체되었다<sup>22)</sup>.

### ③ 축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Programa Crédito Ganadero a la Palabra)

축산업 대출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축(소, 돼지, 염소, 벌)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수급자는 받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4년 이내에 현물로 반제(返濟, 빌린 것을 돌려줌)한다. 또 소규모 생산자는 설비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10만 페소(521만 4천 원)까지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40억 페소(2,085억 6천만 원)이며, 19,000명 이상에게 가축을 제공할 예정이다. 멕시코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캄페체, 치아파스, 게레로, 할리스코, 나야리토, 미초아칸, 오악사카, 키타나로, 타바스코, 타마울리파스, 베라크루스, 유카탄, 사카테카스와 중남부의 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비료 프로그램(Programa Fertilizantes)

비료 프로그램은 남부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작물(옥수수, 프리홀 콩,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ha당 최대 450kg의 비료를 최대 3 ha분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게레로 주에서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총 73,711톤의 황산암모늄이 지급되었다<sup>23)</sup>.

### ⑤ 기타 농업정책

#### · 계약재배 프로그램

계약재배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사전계약을 촉진하여 국제가격의 변동 등에 의한 계약 파기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해서는 판매처가 확보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에게는 조달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생산자와 구매자가 시카고 베이스의 선물가격 등을 기본으로 정해지는 금액에 근거하여, 파종 전에 계약을 맺는다. 2019년에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지만, 지원액은 50% 가까이 삭감되었다.

22)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戰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8号, 2018

23) SADER, “Informe de labor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목표소득 프로그램**

정부가 설정한 농산물 목표가격과 작부시점에 정부가 예상하는 가을시장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 목표 가격이 인상되었고,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sup>24)</sup>.

• **농업보험**

국영 농업보험회사인 AGROASEMEX(Agro-Aseguradora Mexicana)가 주로 소규모 농가용 보험 용자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강수량이나 기온 등 기후조건이 나쁠 경우 또는 일정 범위의 특정 지역 수량이 과거 평균 수량에 부족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 인덱스 보험<sup>25)</sup>이 확대되고 있다.

⑥ **식료품의 수입과 안전성에 관한 규정**

멕시코에 수입되는 농작물 및 식료품에는 일반건강법, 연방동물위생법, 연방식물위생법이 적용된다.

• **건강기본법**

건강기본법은 보건성 내에 설치된 위생리스크 보호 연방위원회(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에 의해 건강상의 리스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COFEPRIS는 동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 수입식품이 수입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판매 시점에서 식품을 랜덤으로 검사하여 기준에 준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유제품, 어패류 및 그 가공품이 검사 대상이다.

---

24) USDA, “Mexico Announces New Agricultural Support Program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25) 통제 불가능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기업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익손실, 비용손실 등)을 보상하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CUSTOMIZED PRODUCT이다. 날씨보험 또는 날씨 인덱스 보험의 필요성은 1)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규모 증대, 2)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감소나 비용증가로 인한 손실 보전, 3) 정보화시대에 따른 기상정보 활용의 중요성 증대, 4) 효율적 기업경영, 5) 날씨는 사업의 성패좌우 등으로 정리되며, 날씨(인덱스)보험의 효과 중 직접효과로는 1) 날씨변동으로 인한 이익감소, 비용증가의 위험 효율적 회피, 2) 기업의 매출 안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효과로는 1) IR 효과 제고 즉 손익안정 ⇒ 주가안정, 주주만족도 제고로 볼 수 있으며, 2) 기업신용도 향상으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다.(네이버블로그 기업보험전문가 인슈컴파니(InsuCompany) 블로그, 기업보험전문가그룹, [기업보험] 날씨보험, <https://blog.naver.com/insucompany/110149195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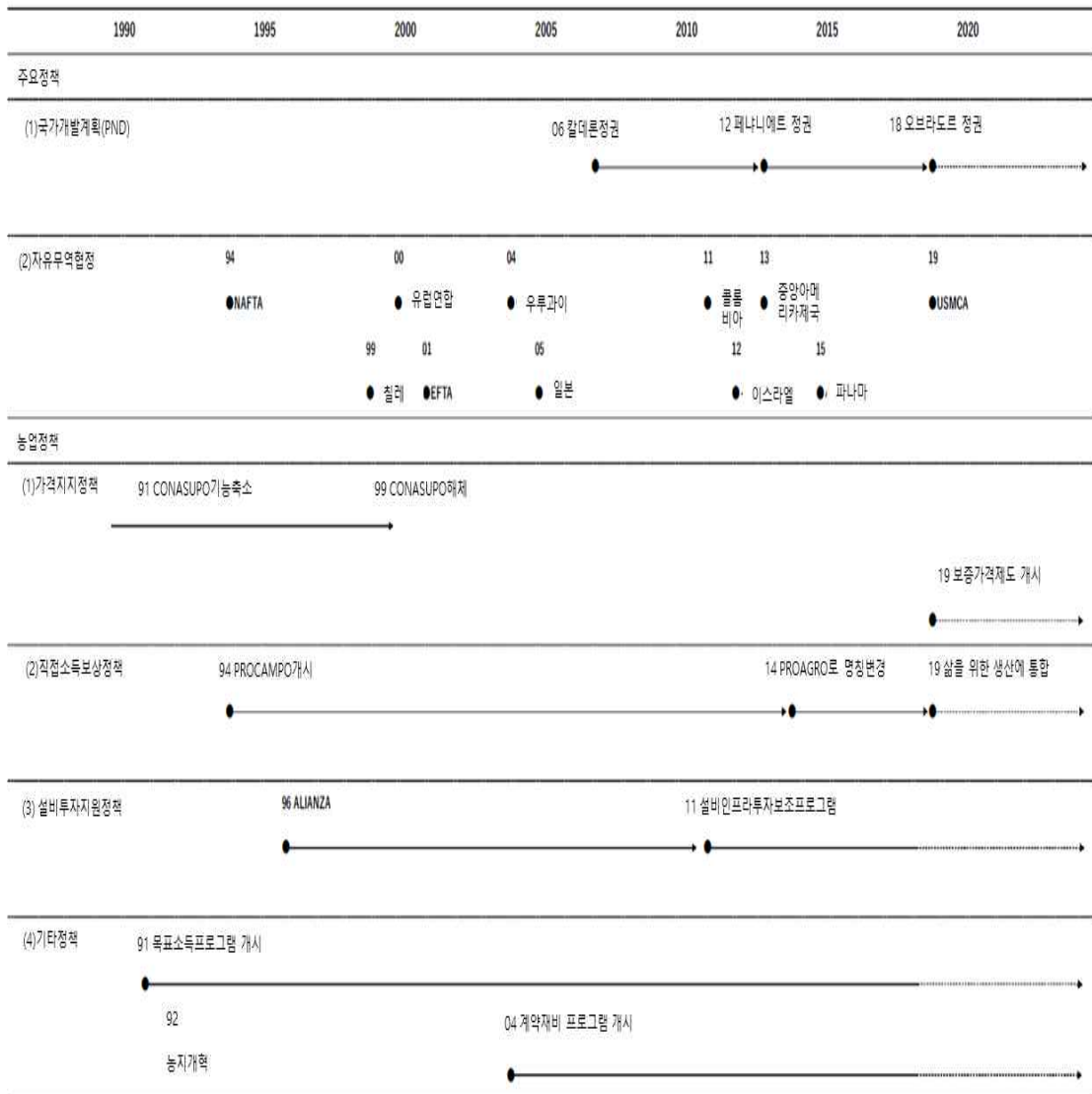
· 연방동물위생법

연방동물위생법은 농업농촌개발성(SADER)이 소관하고 있다. 가축·동물의 건강대책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생산관리 방법의 규정, 수입 및 수출 목적의 가축 및 축산물 수송에 관한 규정,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가축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제조 기준 규정이 담겨 있다.

· 연방식물위생법

연방식물위생법은 농업농촌개발성(SADER)가 소관하고 있다. 과일, 채소 및 그 가공품에 있어서 식물 검역 상 규정과 해충 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 멕시코 농업 관련 정책의 변천



출처: 후지쯔 종합연구소 작성.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3.3. 행정권의 방향성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선거 단계부터 소규모 농가 지원과 식료품 자급자족 향상을 호소하여 왔다. 이 방침 하에 실행된 4개의 핵심 프로그램에서는 곡물, 축산물 등 현재 수입량이 많고, 국내 소비량도 많은 품목의 생산자를 주요 타겟(target)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농가의 지지에 이어진 한편, 채소나 과일, 화훼 등 수출용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생산자에게서 불만도 나오고 있어, 북부의 시날로아와 소노라에서는 상업적 농업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의 행동이 일어났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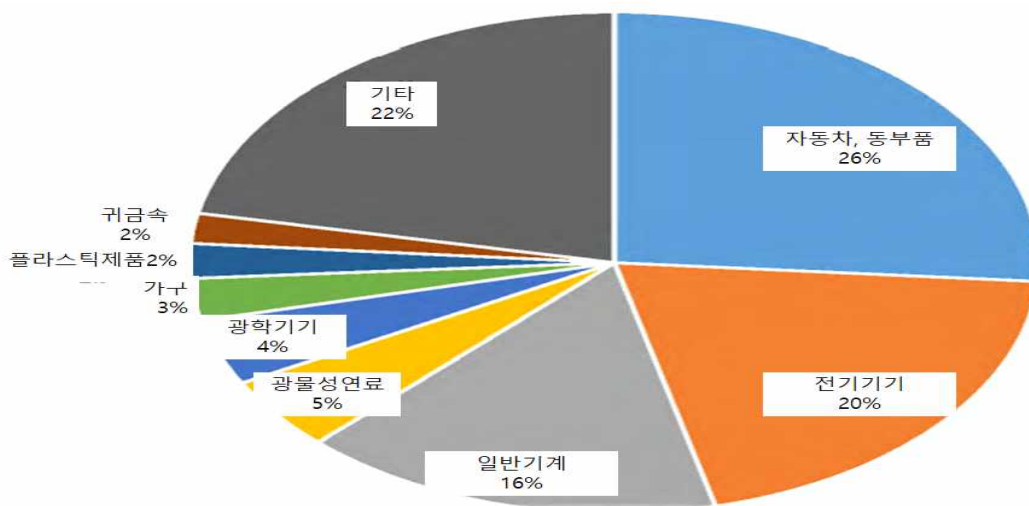
## 4. 통상정책의 변천과 현황 및 방향성

### 4.1. 무역 구조

#### ① 주요 수출품목

멕시코는 자동차와 그 부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광물성 연료, 광학기계, 가구, 플라스틱 제품, 귀금속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림 5〉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목 비중(2016년)



출처: 經濟産業省, 2019, 「通商白書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26) Fitch Solutions, “Mexican Agricultural Production To Expand But AMRO Reforms Too Ambitious”, 2019.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에서 재인용

## ② 주요 무역 상대국

멕시코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307억 US달러(36조 6,321억 6천만원<sup>27)</sup>)의 무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sup>28)</sup>.

## 4.2. FTA·EPA 등

### ① NAFTA 체결 경위와 영향

멕시코는 1982년에 대외채무변제 불능이라는 국가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IMF나 미국 재무성에 의한 구제조치를 받는 조건으로 엄격한 반제의무와 함께 긴축재정이나 무역과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철폐 등 매우 폭넓은 시장화 개혁을 하게 되었다. 멕시코의 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이 1994년 1월 출범한 NAFTA 참여이다.

이전의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증가격제도나 수입농산물 고관세 등 적극적인 농업보호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 같은 시장화 개혁으로 관개시설이나 농업연구, 농촌금융지원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가격지지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었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CONASUPO 해체는 NAFTA 참여라는 외압 탓이 크지만, 재정적 압박과 남부의 영세 농민보다 북부의 대농장에 유리한 정책이었다는 점 등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NAFTA 체결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 조치 철폐, 가공용 옥수수의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맞물려, 멕시코 국내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 같은 가격 저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반면, 생산자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sup>29)</sup>.

### ② NAFTA 산하 멕시코 농업단체와 정부의 협상

NAFTA 체결 후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농업규정의 재협상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농업단체들의 대규모 항의운동이 발생하였다. 농산물 약 400개 품목의 철폐와 미국에서 2002년 농업법(Farm Bill)이 성립된 것 등이 계기가 되었다.

협상결과, 정부는 국내 농업지원 강화 및 통상정책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농촌

27)1달러당 환율은 1,193원/달러(2020년 8월 5일 기준)를 적용하였다. 이하 같다.

28)經濟産業省, 「通商白書2019」, 2019年

29)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exico’s Free Trade Agreements”, 2017.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3月에서 재인용

을 위한 국민합의를 2003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NAFTA의 농업규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③ 기타 무역협정

1994년 NAFTA 발효 이행, 일본, 유럽연합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EU와 영국 간에 EU이탈(브렉시트, Brexit) 협정이 합의되었으나, 브렉시트 이행 기간 또는 한 차례만 인정되는 1년 또는 2년의 연장기간 중에는 멕시코와 EU간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영국과의 무역에 대해 특혜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표 8> FTA 발효년도와 체결 대상국 목록

발효	체결 대상국
1994년	NAFTA
1999년	칠레
2000년	EU
2001년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004년	우루과이
2005년	일본
2011년	콜롬비아
2012년	이스라엘 페루
2013년	중앙아메리카 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2015년	파나마
2019년 (추진중)	신 NAFTA(USMCA)

출처: Congressional Reserch Service, ' Mexicos Free Trade Agreements', 2017

### 4.3. USMCA<sup>30)</sup>와 대미 관세협상의 경위와 영향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을 선언하였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NAFTA로 멕시코의 무역적자가 커져 국내

30)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는다고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했고, 발효된 지 24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USMCA라고 명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가져온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동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2018년 5월부터는 재협상이 멕시코 대선으로 중단됐다가 7월 미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약칭 압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협상 개시 선언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는 2018년 8월 27일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 등 주요 부분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캐나다에 앞서 먼저 새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미국은 캐나다와 2018년 8월 28일부터 NAFTA 개정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없이 종료됐고, 9월 11일부터 개정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이르면서 9월 30일 북미 3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명칭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이라고 명명했다. USMCA의 교역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북미 3국 정상들의 서명과 의회 승인을 거쳐 발표된다. 이로써 NAFTA는 발효된 지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비판하며 이탈도 언급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통상협정 교섭권한을 정하는 TPA법(미 무역촉진권한법<sup>31)</sup>)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18일에 NAFTA 재교섭을 실시할 의사를 연방 의회에 정식으로 통지하고, 7월 17일에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섭 목적의 상세를 공표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3개국 대표에 의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조약승인권능을 가진 연방의회 상원에 USMCA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나, 미국은 멕시코의 불법이민대책이 미흡하다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sup>32)</sup>)에 따라 2019년 6월 10일 자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멕시코 정부가 회피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멕시코 관세가 미국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미국 산업계와 공화당 내에서도 이론(異論)이 분출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7일 멕시코 정부가 중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흐름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6월 10일로 예정했던 관세 발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 상원은 USMCA 인준안을 심의해 2019년 6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sup>33)</sup>.

## 5. 맺음말

멕시코는 1994년 미국·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전에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제도적 자세를 취해왔다. NAFTA 체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1991년에는 공동체 농장인 에히드 개혁으로 에히드 공유지의 임대차, 매

31)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는 무역관련 신속승인절차이다. 미국 대통령이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TPA는 1994년 효력을 잃은 신속승인절차(fast track authority)가 부활한 것으로 TPA로 개명되었다. TPA는 의회가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없이 90일 안에 승인 또는 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의회는 행정부에 협상목표를 제시하면서 협상권을 위임할 뿐 부분 수정 등 통상적인 의회 절차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TPA 법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협상 결과를 상원이 최종 수정할 수 있도록 한 TP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업계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전권을 맡기지 않고 의회가 어느 정도 손질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32) 국제긴급경제권한법(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IEEPA). 전시나 국가 비상 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법률이다. 1977년 10월 28일 제정된 L.95-223,91통계 분석 1626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원천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대통령이 국제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승인한 미국 연방 법이다. H.R.7738 법안은 1977년 12월 28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미국 법전에서, IEEPA는 제50편, 제1701조-1707조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IEEPA)는 대통령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존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미국 밖에서 유래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선언 후 대통령이 거래를 차단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승인한다. 미국에 실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테러를 지원한 국가, 단체, 개인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IEEPA는 NEA(National Emergencies Act)의 규정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법에 따라 선언된 비상 사태가 계속 유효하려면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Powers\\_Act](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Powers_Act))

33) みずほ総合研究所, 「米墨不法移民問題と貿易摩擦 USMCA批准・発効に新たなハードル」, 2019年

매가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기존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농가지불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빈곤문제와 농촌대책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칼 데론 정부는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농촌개발을 추진하였다. 또 이 정권은 치안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마약조직 간 항쟁이 격화되는 등 치안 개선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취임을 즈음하여 차기 정부의 예산·정책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18년에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빈부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재분배, 에너지 자활, 농업자활이라는 저소득층 중시 세 축을 내걸고 있다.

NAFTA 참여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증가격제도나 수입농산물 고관세 등 적극적인 농업보호정책을 취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이 같은 시장화 개혁으로 관개시설이나 농업연구, 농촌금융지원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가격지지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었다.

NAFTA 체결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 조치 철폐, 가공용 옥수수의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대미 수입 증가와 맞물려, 멕시코 국내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 같은 가격 저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반면, 생산자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

NAFTA 체결 후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농업규정의 재협상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농업단체들의 대규모 항의운동이 발생하였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내 농업지원 강화 및 통상정책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농촌을 위한 국민합의를 2003년 발표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은 2%의 경제 성장률과 3.4%의 인플레이율이라고 하는 견실한 경제 전망을 전제로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방침을 보여주었으며, ‘국가개발계획(PND) 2019-2024’에서는 「포괄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변혁」을 전체 목표로 하여 1) 정의와 법의 지배, 2) 복지, 3) 경제개발이라는 3개의 축과 그들을 공통으로 관통하는 1) 성(性)적 평등·무차별·포섭, 2) 부패 척결과 행정 개선, 3) 국토 개발 및 환경 보전이라는 3개의 축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폐와 식량이나 연료, 농업 설비의 수입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 사탕수수의 생산은 2014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19~2023년에 걸쳐 연평균 1.2%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도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수수는 국내 소비 중심이지만, 소량이나마 중미국가에 수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용 옥수수 수입은 많다.

주요 수출품은 맥주, 토마토, 아보카도, 증류주, 풋고추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대두, 조정식료품, 밀, 돼지고기 등이다.

멕시코 농업농촌개발성(SADER)의 주요 농업 정책 중에는 생활을 위한 생산 프로그램, 식료품 가격 보증 프로그램, 축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비료 프로그램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격보증정책은 직불이 주류가 되기 이전 멕시코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화 흐름 속에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지지제도가 폐지되었다.

축산업 대출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축을 빌려주는 제도이며, 비료 프로그램은 남부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계약재배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사전계약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한편, 목표소득 프로그램은 정부가 설정한 농산물 목표가격과 작부시점에 정부가 예상하는 가을시장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농업보험 제도 중 날씨 인덱스 보험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멕시코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이 뒤를 잇지만, 미국과의 교역에 비중이 치우쳐 있다. 멕시코는 1982년에 국가 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IMF나 미국 재무성에 의한 구제조치를 받는 조건으로 엄격한 반제외무와 함께 긴축재정이나 무역과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철폐 등 매우 폭 넓은 시장화 개혁을 하게 되었던 바도 있다. 멕시코의 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이 1994년 1월 출범한 NAFTA 참여이다.

현재까지도 멕시코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멕시코 농업의 성패 혹은 발전의 정도에 대한 헤게모니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에서는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예산의 63.6%가 사회정책에 충당된다. 농업농촌개발성(SADER)의 예산은 43.7%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멕시코 농업 및 무역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그 배경이 되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株式会社富士通総研,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北米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年 3月
- 外務省, 「メキシコ合衆国基礎データ」, 2019.
- 經濟産業省, 2019, 「通商白書 2019」
- 総務省, 「諸外国の行政制度等に関する調査研究 メキシコの行政」, 2010.
- 松下洸, 「ロパス・オブロードの時代-メキシコ社会の再生に向けた課題と展望-」, 2019.
- みずほ総合研究所, 「米墨不法移民問題と貿易摩擦 USMCA批准・発効に新たなハードル」, 2019年
-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8号, 2018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exico’s Free Trade Agreements”, 2017.
- FAOSTAT(November, 2019)
- FAOSTAT(March, 2020)
- Fitch Solutions, “Mexican Agricultural Production To Expand But AMRO Reforms Too Ambitious”, 2019.
- SADER, “Informe de labores”, 2019.
- SHCP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ón 2020’, 2019.
- U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9
- USDA, Mexico: Sugar Annual, 2019,
- USDA, Mexico: Grain and Feed Annual, 2019
- USDA, “Mexico Announces New Agricultural Support Program”, 2019
- 서울와이어, ‘송유관 뚫어 석유 절도하다… 멕시코 송유관 폭발 사망자 66명으로 늘어’, 2019년 1월 20일자 기사(<http://www.seoulwire.com>)
- 나무위키(<https://namu.wiki/>)
- 네이버블로그 기업보험전문가 인슈컴파니(InsuCompany) 블로그, 기업보험전문가그룹, [기업보험] 날씨보험(<https://blog.naver.com/insucompany/110149195182>)
- 네이버 블로그 FICC 조석원, ‘BUY 멕시코’, 2019년 2월 24일 게시(<https://blog.naver.com/zulupapa/221473864949>)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https://terms.naver.com/>)

네이버카페 남미사랑, ‘멕시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아  
요’ (<https://cafe.naver.com/nammisarang/33500>)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Powers\\_Act](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Powers_Act))

멕시코 대통령부 웹사이트

멕시코 각 부처 웹사이트

Geo-Mexico 웹사이트